

2학년 4반 4월 독서토론

조이름 : 공유는 파

조장 : 배나여

조원 : 박효은, 이유진, 조현정, 이해연

| | |
|--|--|
| 도서명 특수교사 교육을 말한다 | |
|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 | |
| <p>"특수교사 교육을 말한다" 라는 책을 선택한 이유는 진짜 선생님인 애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 여러 학생들을 만나게 될텐데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 모두 보듬어 줄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었다.</p> | |
| 독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 | |
| <p>• 박효은 - "원순잡이가 비정상인가 ... (생략) 오른손잡이에게 맞춰진 세계는 당연히 보이는 원상이라 의사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"</p> <p>→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을 쓴다고 해서 원순잡이가 비정상이 아닌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도 비정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</p> | |
| <p>• 이해연 - "우리는 특수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육을 하는 것이다"</p> <p>→ 나의 편견을 깨우게 하는 구절이었다.</p> | |
| <p>• 이유진 - "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"</p> <p>→ 장애가 치료 가능한 마음의 병조 아님에 장애를 극복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것 같다.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를 극복하라는 말 대신에 따뜻한 다짐과 보살핌을 주었으면 좋겠다.</p> | |
| <p>• 조현정 - "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재능은 장애에 가려 드러나지 않거나 비장애아이들에 기준에 맞추느라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인지 모른다"</p> <p>→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재능이 있는것이라는 나의 편견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.</p> | |
| <p>• 배나여 - "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"</p> <p>→ 이 구절은 모든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것 같다. '극복'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재능을 가진 있기때문에 나온 말 인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사라지면 극복도 사라진 말 인것 같다.</p> | |

도서 중 가장 와 닿지 않았던 부분(글쓴이의 생각과 달랐던 구절)과 그 이유

• 조현정 - "장애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"

→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스스로 극복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장애를 극복해 내고 성장한다면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.

• 박효은 - "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"

→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불고려하지 않을 만큼이 끝까지 극복을 해야 더 나은 나야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 같다. 하지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등지게 될 것 같기 때문이다.

• 이해연 - "내 몸을 대해 생각하고 의논하는 것 까지다"

→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몫이다.

• 이유진 - "'원더' 영화의 주 여타 속에서 에기의 담임선생님은 '옴증과 진저함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진저함을 선택하라.' 라는 직언은 아이들에게 전한다"

→ 장애를 가진 학생이 심수고 어떤 판목을 했을 때, 옴지 않다고 다그치는 것보다 친절하게 다짐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더 학생에게 좋은 것이다.

• 배나영 - "무라는 특수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육을 하는 것이다"

→ 이 구절은 마치 특수교육을 나쁘게 바라보는 것 같다. 특수교육도 교육의 한 부분이기에 때문에 똑같은 교육인 거 같다.

전체적으로 느낀 점

교사가 되었을때 장애인에 학생을 교육하는 방법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
책인것 같다.

느낀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다짐

- 배나영 - 앞으로 장애인 학생들과 비장애인 학생들 모두 편견없이 똑같이 대우해야겠다.
- 박효은 -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아야겠다.
- 조희정 -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편견을 깨야겠다.
- 이해연 - 중언지 앞는 친구는 없다고 깨달았다.
- 이유진 - 장애인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겠다.

조장이 하고 싶은 질문 & 총평

이 책 <특수교사 교육을 말한다> 라는 책을 읽고
•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을 차별없이 가르쳐줄수 있기를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.

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을 편견없이 교육할 줄 아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.